

보도시점 2024. 9. 6.(금) 배포 2024. 9. 6.(금)

이상덕 재외동포청장,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

- 9일 대회장·전시관 설치·교통·숙박 등 직접 확인
-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“준비에 만전 기해달라” 당부

-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오는 9월 9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.
 - 대회는 오는 10월 22~24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천여 명 참가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다.
 - 이 청장은 대회 한달 반여를 앞두고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 개최를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함께 직접 준비 상황을 체크한다.
- 특히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내 설치될 기업전시관의 9월 내 공기 완수를 점검한다. 300여 개 부스로 운영될 기업전시관은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만나 해외진출 및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핵심 장소다.
 - 또 개회식이 열리는 삼성문화회관, 멤버십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진수당, 환영만찬과 폐회식 장소인 실내체육관 등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한다.
 - 아울러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호텔들을 찾아가 객실 확보 현황, 시설 상태 등도 직접 챙길 예정이다.

○ 이외에도 대회 참가자들의 원활한 접근 보장을 위해 주요 동선별 셔틀버스 운행,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 대책은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등도 점검한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이번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”면서 “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할 계획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 장 이 경 아	032-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 박 용 준	032-585-3297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